



## 한덕수 총리,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

- 부처·기관 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안전정보 폭넓게 공유할 것
- 일시대피자 지원과 수해 복구에 정부·지자체가 최선을 다할 것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6일(일) 아침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\*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.

\* 행안·국방·농식품·산업·환경·국토부, 경찰·소방·문화재·산림·기상청, 17개 시·도, K-water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수력원자력

□ 한 총리는 청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작업에 대해 “군과 경찰, 소방, 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”며 “빠른 시간 내 구조작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이날 한 총리는 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,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”며, “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,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○ 이어서 “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달라”고 지시했다.

□ 또한, 한 총리는 “사전대피와 주거지 피해 등으로 현재 일시대피하고 계신 분들이 5천명이 넘는다”고 말하며, “대피 중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고,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”고 지시했다.

□ 이 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·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하여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·운영 중이며,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·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.

- 행안부는 군·경·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,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-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, 장비 69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했다.
-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·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 순찰,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.
- 한 총리는 계속되는 호우로 연일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, “한치의 긴장도 늦추지 말고 과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와 지속적인 점검,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
